

泰西教育의 歴史的 觀察 (十八)

룻소氏 빠세도氏

鼎言生

룻소씨(三)

第三期, 此는 德育을 施하는 바의 時期로써 十五歲로 二十歲에 至하기까지 情操의 發育과 德性の 涵養 及 宗教心の 訓練을 此期에서 施할 것이라. 『에밀』은 十五年間 父母가 無하고 朋友가 無하여 全히 孤獨의 生活로써 親愛의 感情이 乏하얏스나, 今은 情熱이 發한 時期로써 讀書 習字를 授하며 算術을 敎함으로 此의 啓發을 圖하며, 同情과 慈惠의 感情에 源하여 善惡의 觀念을 養하며, 教育體系로써 此二情을 『에밀』의 感染케 함을 思하엿도다. 然하여 『에밀』은 遂히 道德의 本領에 入치 아니치 못할지니, 若道德의 本領이 此에 有치 아니한즉 余는 其良心의 端緒는 感情의 端緒에 歸하고 善惡의 發生은 愛憎에 出하며, 正과 善은 獨히 智力의 想見된 抽象的의 言詞 뿐 不啻라. 尙히 理性이 證明한 精神의 眞實한 感動이라 하엿도다. 盖氏는 實際 德性과 感情을 同視하고 其道德論은 全히 感情的 倫理論이라. 然하여 宗教教育은 十六歲 或은 十八歲에 至하기까지 此를 禁하고, 兒童의 理性을 充分히 達하여 天地 自然의 現狀을 視察하고, 自然에 神聖한 大智者된 神의 存在를 認得할 時期를 此에서 待하엿도다.

『女子教育』 『에밀』의 第五卷은 女子教育을 論하얏스니 女子는 全히 男子의 依賴하는 者인즉, 其教育은 男子를 喜하고 男子를 利하며 男子에 愛하며 幼者를 敎育하고 老子를 保護하며, 一家의 內部를 整理하고 此를 完美케 할 方法을 敎할지니라.

빠세도[마제도우]씨

『氏의 略傳』 第十八世紀의 末에 在하여 『룩크』 及 『룻소』의 教育主義를 考究 採用하고 『고메뉴쓰[코메니우스]』의 敎育法을 實際에 應用하고저 하는 等派가 起하니 此를 仁德學派라 稱하는도다. 此派는 獨逸에서 起한 學派이니

蓋獨逸의 從來 教育은 專히 兒童을 壓抑 屈服케 하여 從順에 赴한다 稱하고 學修하는 바 別히 無하고 實用的 職業에 傾할 뿐이 었도다. 然이나 十八世紀의 後半葉으로부터는 英育事業에 一大 改革이 生하여, 教育은 人生의 眞理에 基하고 自然과 天理에 依치 아니함이 不可하다 하얏도다. 如斯히 獨逸教育界의 一大 改革의 動機를 與함은 『룻소』의 『에밀』이 其力을 與한 者이라. 今에 此改革者 中の 第一流된 人物이 生하얏스니 『싸세도[바제도우]』氏가 卽 是 이라.

氏는 一千七百二十三年에 『한쉴히[함부르크]』에 生하여 幼時로부터 家庭에 在하여 壓制的 教育을 受함을 肯치 아니하고, 居然히 去하여 『쉴쓰티인』州에 在한 一醫師家에 投寓하얏도다. 醫師는 氏의 天才가 卓越함을 甚히 愛護하여 此를 氏의 父親의게 告하고 又 氏를 勸告 訓戒하여 家庭에 歸하게 하얏도다. 此際에 氏는 『한쉴히』文科 中學校에 入하여 此를 優等의 成績으로써 卒業한 後에 『라이쑤치히[라이프치히]』大學에 立하여 神學을 研究하게 되얏스나, 此는 氏의 本意하는 學이 안임으로써 哲學, 倫理學 等を 研究하고 卒業 後에 家庭教師가 되얏도다. 其後 『덴마크』國의 兵學校 倫理學 校師에 招聘이 되얏스나, 氏는 基督教와 意見を 異히 함으로써 其職을 맞참내 辭去 하얏도다. 此로부터 氏는 快然히 志를 入하여 心身を 全히 教育事業에 傾注 하여 從來의 教育現狀을 一新코저 目的하얏도다. 然하여 其若干의 時日을 經 하여 其意見を 實行할 機會를 得하얏스니, 卽 當時 貴族 中 一流되는 『렛소』 候의 招聘이 是이라. 氏는 候의 招함을 蒙하여 一七七四年에 一個 模範된 師範學校를 設하고, 其制度는 極히 宗教上의 儀式을 去하고 全히 社會의 風俗과 信義 等を 重히 하여, 從來의 學校와 其面目을 異히 함으로 世人의 論議 非難이 多하얏스나, 此에 屈치 아니하고 教育制의 大改革을 目的하얏도다.

『氏의 教育主義』 教育의 目的은 伶俐한 人物을 養成함으로써 完全한 世界를 構造하고 眞正한 極樂社會를 創立하는 것이라. 故로 德育上 及 宗教上에 關하여는 『룻소』와 同히 自然教育主義를 取하여 正道를 守하고 良心을 發揮케 할 것이오, 體育은 一時라도 等閑함이 不可하도다. 然이나 生徒를 管理함에는 從來로부터 苛酷한 主義에 離하여 溫和親愛를 主旨로 하여 此에 臨할 것이라 하니라.

『氏의 教授法』 氏의 教授法은 最히 意를 用하여 兒童으로써 愉快中에 其學할 바를 知得케 하얏스니, 其要目を 示하건대

第一, 苦心으로써 修함을 避하고 오직 愉快로써 學케 할 것.

第二, 多히 學함을 避하고 易함으로써 難에 進할 것.

第三, 小學校는 人間 一生의 基礎인즉 毫도 欠點이 無한 天性을 養育할

것.

第四, 先히 實物을 示한 後에 說明과 教科書로써 學할 것.

氏는 此等 四個要目으로써 教授의 法을 作한 外에 或은 菓子에 羅甸文字
를 刻하여 此를 習性 後에 食케 하며, 或은 文字의 骨牌를 作하여 互相 戲弄
케 하는 中 其文字를 學得케 하니라.